



영화 속세 그려진 미국, 반미 그리고 전쟁 2

# 미래의 승리는 연약한 자의 것이다

모든 전쟁은 선이 아니며 또한 부조리하다. 특히 강자가 약자에 대해 벌이는 전쟁, 아니 침공이나 침략은 모두가 악이다. 문명의 패배이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이자 파괴다.

도대체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 이 화두는, 지구 유일의 패권국가인 미국이 이라크전을 통해 그(들)만의 일극체제가 개막되었음을 선포한 이 시점에서 실로 전 인류적인 과제가 되고 말았다. 발등의 불인 북핵 문제를 떠안고 있으며 이라크전에 군사 파병까지 감행한 우리에게 더욱이 곧바로 직결되는, 아주 큰 난제이다. 우리의 처지는 뜨거운 감자를 입에 머금은 꼴, 그보다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라고 해야 비유가 적절하리라. 그러나 사태는 그리 비관적이지도, 결코 절망적이지도 않다. 북한은 이라크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이라크전은 미국 남부의 기독교 원리주의가 이끄는 아메리코폴리아(광신적 미국숭배증)의 산물이다. 미국은 지금 석유·군수품을 위시한 거대 산업 자본과 유대 금융자본의 '지휘' 아래 경기침체 속에 몸살을 앓는 각종 군소 자본에 이르기까지, 주류 언론과 거의 일체화된 목소리로 애국주의를 노래하고 있다. 시온주의와 교묘히 어깨동무를 하고서 말이다.

미국영화 <7월4일생>은 60년대 미국 군산복합체와 반공이데올로기가 생산하고 윤색해낸 애국주의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수작 드라마이다.

반인륜적인 전쟁을 규탄하는 절대 다수의 국제여론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완전 고립무원 속에서 에너지 분쟁과 최첨단 전자전의 희생양이 돼버린 이라크 민중들... 이라크전은 가령 1936년 스페인내전 때하고는 양상이 사뭇 다르다. 당시 스페인엔, 중도좌파 인민연합정부를 전복시키려는 프랑코 등 국제 파시즘 세력연대에 대항해 유럽·미주 지역 도처에서 진보적인 지식인·노동자·학생들이 의용군으로 몰려들었다. 스페인내전을 다룬 영화들로서는 헤밍웨이 원작의 러브로망으로 게리 쿠퍼가 주연한 고전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와 영국의 작가 겸 감독 켄 로치가 찍은 '혁명' 시대극 <랜드 앤 프리덤>(1995)이 정말 볼 만한데, 그때의 상황은 지금 이라크 정부의 군사적 고립무원과 이리저리 비교된다. 이라크에도 반전 평화팀과 인간방패로 나선 여러 개인, 단체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숭고한 정신에 비해 전쟁(침공) 억지력이 미약해 참으로 안타깝다. 그러나 이라크군의 저항이 의외로 만만치 않은 데다 일부 아랍국에서 의용군이 결성되고 있다는 소식도 급보로 날아오고 있다. 오늘의 승리는 지배자의 것일 수 있으나 내일의 승리는 연약한 자, 곧 민중의 것이리라.

수십 명의 빈 라덴,  
더욱 강력해진 알 카에다  
11년 전의 걸프전이 반미로 돌아선 빈 라덴을 낳았다면, 이번 전쟁은 더욱 다가오는 전세계 무슬림들의 반미



▲ 적군파의 탄생과 활동은 미국의 세계지배전략과도 관계가 깊다. <레전드 오브 리타>의 한 장면  
▶ 영화사상 최고 수준의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는 이브 몽땅 주연의 <계엄령>

적대감과 함께 장차 수십 명의 빈 라덴 그리고 더욱 강력해진 알 카에다를 낳을 것이다. 1975년, 베트남에서 패퇴한 미국은 일찍이 대량살상 무기인 네이팜탄이나 핵폭탄이 없어서 그 신세가 된 것이 아니다. 전쟁의 부도덕성이나 명분없음 그리고 점령지역 민족과 민중의 이익·정서에 정면 배치된 군사행정, 바로 이런 점들이 미군과 남베트남 친미 정권이 자랑하던 거대한 물자와 첨단 장비를 무색케 한 것 아닌가. 석유 패권을 통한 21C 미국의 경제적 생존과 번영, 나아가 국제 정치·군사 무대 위에서의 1극체제 수립은 술한 도전과 난관을 맞이할 터. 최소한 테러(침공이라는 국가테러)는 또다른 연속적인 테러를 낳을 것이다.

1968년 미국은 북베트남 지역에 대량의 화학무기 네이팜탄을 무차별 살포하는 등 대대적인 북폭을 확대, 감행한다. 이를 또다른(세계사적인) 계기로 삼아서독에서는 정치테러 조직 적군파(RAF)가 결성되는데 이태리, 일본 등에서도 반제·반미 투쟁의 기치를 필두로 내건 같은 이름의 무장혁명 그룹이 생겨난다. 이들은 점거·납치·인질극, 은행 털이, 총격·폭탄 투척 등 도시계릴라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전선을 확대해 간다. 하여, 70년대 '팔레스타인 민족해방투쟁'의 기치 아래 중동전에 참전하거나 이슬람 무장테러 조직의 일원이 되기도 한다.

이번 4월2일 광화문 씨네큐브에서 개봉된 독일영화 <레전드 오브 리타>는 7-80년대 분단 독일의 세월을 숨가쁘게 달려온 과격 이상주의그룹에 관한 영화다. 70년대 말 프랑스로 도주한 적군파 요원 잉게비트와 그 동료들의 실화를 옮긴 이 수작은, 이상사회를 건설하려는 사람들의 열정과 낭만주의 그리고 그들의 일상을 그린 독특한 영화다. 영화 <양철북>의 거장 폴커 슬렌도르프는 전작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1975)와 <가을의 독일>(1978·공동연출)에서는 적군파의 인권 문제를 다루며 독일 중산층의 파시즘적 경도를 비판한 바 있다.

일견 '베트남전의 현재진행형'을 그려 보이면서 가족 간의 사랑을 다룬 영화로 시드니 루멧 감독의 <허공에의 질주>(1982)가 있다. 전쟁이 한창 극성일 때 학생운동 출신 투사 커플이 미국내 생화학무기 재료 생산공장을 폭파하려다 실패하고 평생을 위장신분으로 두 아들과 함께 FBI에게 쫓기며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운동을 포기하지 않고 환경운동 등에 헌신하는 가슴아픈 감동적 드라마이다. 수년 전 경리련 간부들이 수련회 때 이 희귀 비디오를 같이 보고서 모두 울고 말았다는 바로 그 '전설'의 영화...

### 왜 우리는 영화를 보며 분노하는가

'91 걸프전 바로 2년 전엔, 후세인처럼 미국이 적극 지원하며 키웠던 노리예가 정부를 전복키 위해 전격 감행된 레이건-부시의 파나마 침공이 있었다. 침공의 목적은 미국이 내걸은 '파나마의 민주헌정 회복'이란 명분과 달리 기실 파나마 운하의 지속적인 지배권 확보에 있었다. 그리고 파나마를 신예 F-117기의 시험장으로 삼으려는 것... 그러한 사실을 폭로한 영화가 한 편 있는데 아카데미 다큐멘터리 부문 작품상을 수상한 여걸 바바라 트렌트의 <파나마 사기극>(1992)이 그것이다. 영화는 침공 당시 무차별 폭격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과 어린이들(특히 가난한 지역의...)이 살육되었는가를 증언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 이른바 국익을 위해, 국제법을 무시한 이 거대한 사기극에 동조하며 여론을 조작했는지를 증거하고 있다.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 아마도 정치영화 전문 감독으로서 일관되게 이 문제에 대해 의문을 던져온 이가 있다면, 그는 그리스 출신 국제적 거장 코스타 가브라스일 것이다. 남미 우르과이를 배경으로 한 <계엄령>(1973)과 칠레 군사쿠데타를 다뤘고 칸느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의문의 실종>(1982) 감독이다. 그는, 미국이 전면에서 나서지 않고 배후에서 계엄령이나 쿠데타 같은 준 전시적·전쟁적 수단을 지원하며 제3세계에서 자신의 야욕을 실현시켜 가는 모습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려 보였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매한 걸작 다큐멘터리 영화 <칠레전투> 3부작(1973)은 가능한 폭 구해서 감상해야 할 인류문화사의 기념비적 작품이다.



곽영진  
영화평론가